

마일, 항공협상 타결

7월 2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일 항공회담이 타결되어 5개월간 계속된 불편한 관계가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화물기에 대해 일본을 경유해 일본 국내 및 아시아의 다른 지역까지 연장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권을 부여하고, 미국은 일본 항공(JAL)과 닛폰화물항공에 대해 오사카-시카고간 화물기운항 횟수를 추가로 주 6회 증편 운항토록 허용했다.

페데리코 페냐 미 교통장관과 가메이 시즈카 일본운수상 간의 이날 회담에서는 또 일본측에서 불공정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해온 지난 52년의 항공화물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상을 오는 9월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페냐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보다 확대되고 개방된 환경 속에서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연간 60억달러 규모의 양국간 항공화물시장 경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페더럴 익스프레스사의 톰 마틴 대변인은 역내 모든 화물항공사들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은 아

시아-미국간 항공화물시장에서 5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48%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협정이 일본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9월 열리는 항공화물협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에 대해 미국측은 기존의 승객운송협정이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일본측 공보관계자는 “양측이 기존의 승객운송협정의 재검토도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까지 논의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7개 정기 항공노선 개설

벨기에 브뤼셀 등 7개 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정기 항공 국제노선이 새로 개설돼 8월부터 단계적으로 취항이 시작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7월 23일 그동안 외국과의 항공협상 결과 새로이 우리나라 항공사의 취항이 가능해진 여객 7개지점과 화물 2개 지점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고 영업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취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개설된 여객 국제노선은

브뤼셀(벨기에), 비엔나(오스트리아), 텔아비브(이스라엘), 케인즈(호주), 나디(피지), 멕시코시티(멕시코),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이며, 화물편은 브뤼셀과 바젤(스위스)이다.

항공사별 노선배분은 대한항공이 텔아비브, 나디, 멕시코시티 등 여객 3개지점과 브뤼셀, 바젤 등 화물 2개 지점이며, 아시아나항공이 브뤼셀, 비엔나, 케인즈, 타슈켄트 등 여객 4개 지점을 운항하게 됐다. 이번 신규노선 배분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유럽과 호주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다.

일본, 도쿄지역에

제3공항 건설 계획

日本은 국내선 항공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도쿄지역에 제3의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월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운수성이 오는 99년 초에 착공될 예정인 신공항건설 계획을 마련해 놓고있다고 밝히고, 당국은 이 계획이 산하 자문기구인 민간항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공항확장 5개년계획(1996~2000)에 포함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신공항의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도쿄灣 매립지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수성은 도쿄지역의 국내선 운항에 이용되고 있는 하네다 공항의 경우 오는 2008년께는 교통량 폭주로 과부하가 걸리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울진에 2000년까지 공항 건설

경북 울진에 목포공항 규모의 새공항이 들어선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총 사업비 6백17억원으로 울진군 기성면 봉산·구산리 일원 50만㎡의 부지에 오는 2000년까지 공항을 건설키로 했다.

시설규모는 B737-400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폭 30m, 길이 1천5백m의 활주로 한 개와 연면적 1천㎡의 계류장,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을 갖춰 현 목포공항 수준으로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오는 97년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와 용지 매입을 마치고 98년 착공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지역의 항공수요

가 공항이 완공되는 오는 2000년에 연간 24만4천명에 이르고 2010년에는 41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 소방항공대 창설

인천시 소방항공대가 오는 10월 창설된다.

8월 1일 시에 따르면 美國 벨社에 주문한 10인승 헬리콥터의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0월 소방활동과 재난구조 등의 임무를 담당할 소방항공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美國 벨社에 벨(BELL) 230 쌍발 10인승 헬기를 32억6천여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했으며 오는 9월 인수할 예정이다.

시는 中구 雲西동 永宗島 신공항 부지 4백20㎡에 전용 격납고를 마련하고 조종사와 정비사를 비롯한 헬기 전문요원 4명과 소방공무원 6명 등 10명으로 항공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메리칸항공, 일본항공과 제휴

세계 최대의 항공회사인 아메리칸항공(AA)과 일본항공(JAL)은 2일 CRS(컴퓨터에 의한 항공

권등의 예약, 발권시스템) 분야에서 자본, 기술제휴 계약에 조인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아메리칸항공은 일본항공의 CRS자회사인 악세스국제네트워크(자본금 7억엔)의 발행주식중 25%를 인수하는 동시에 임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본항공은 세계최대의 네트워크를 갖는 아메리칸항공의 CRS "세이버"를 일본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양사간의 실제사업은 내년 여름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한강 노들섬에 헬리포트

삼성항공은 한강 노들섬(일명 中芝島)에서 수원, 용인, 대전간 노선을 오가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인 헬리포트를 건설키로 했다. 이 노들섬 헬리포트는 빠르면 오는 11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삼성항공은 지난 6월 1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노들섬 헬리포트 개발사업인가를 받았으며 국토관리청과 3천여평규모의 헬리포트 부지 사용문제에 관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항공은 부지사용인가가 나오는 대로 약5억 원을 들여 부지 3천평, 사방 1백

m규모로 헬리콥터 2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를 조성하고 터미널과 관리사무실등의 부속건물도 짓기로 했다.

이로써 삼성항공이 서울~용인간 부정기노선에 이용하고 있는 잠실헬리포트에 이어 서울에서는 2번째 헬리포트가 들어서서 셈이다.

화려한 도장유행 러시아 신 항공사들

러시아는 과거 독점국영이었던 아에로프로트 항공 외에 신규 항공사가 설립되어 속속 현업에 진출, 아에로 프로트와 경쟁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는데 최근 이들 신설 항공사들이 자사 항공기의 색칠을 아주 현대적으로 화려하게 바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레크 에비아사는 동사 소유 야크 42D형기에 아주 화려한 외부 도색과 함께 기체 앞부분에 4각형의 짙은 색 위에 사명 마크를 흰색으로 돋보이게 하는 외에 내부에도 감각적인 도색을 해서 손님들 끌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한편 또 다른 에어러시아사는 중·소형기를 이용해 단거리 손님을 유치하려고 멀리서도 눈에 띌 색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내장에 승객 의견 들어 MD-95 단거리용기에

맥도넬 더글러스사는 중형 여객기인 100석급 MD-95형에 대한 제안을 단·중거리 취항 에어라인 각사에 제안하면서 내장에 대한 의견을 모아 여객들의견에 따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MD사는 내장 모형을 3개사에 발주해 이것을 16개 이상의 에어라인 각사에 제시하고 승객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도록 부탁해 자료를 수집후 내장계획을 확정했다고 한다.

파산구제 다시 신청 TWA사, 미조리주서

미국의 TWA는 지난 92년 1월 미국의 파산법에 의한 회사 갱생 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미조리주 센트 루이스 재판소에 연방파산법 제11조의 적용을 위한 절차를 신청했다고 항공관계자가 전했다.

처음 신청했을 당시는 임금 삭감과 종업원 감축, 종업원 일부를 지주자회사로 전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갱생 시켰었다.

이번에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우선 절차기간인 8월말까지 시간

을 벌여 그회사에 채권과 주식을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채를 약 14억달러 경감하여 회사의 재건을 꾀할 방침이라고 한다.

신기종 12기 수주 본바르디에, 대만에서

중·소형기 메이커인 본바르디에사는 대만의 대화(大華)항공으로부터 동사의 DHC8-400기를 12기 수주했다고 밝히고 그 외에도 40기 정도의 주문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따라 본바르디에에서는 97년 1/4분기까지 DHC8-400형 1호기를 만들어 98년말까지 형식승인을 얻은 뒤 99년초부터 대만에서 대화항공이 단·중거리 여객수송 업무를 시작하도록 납품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동사는 50석급의 캐나다 아SE기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5월에 첫 비행을 마쳤고 미 연방항공국의 형식승인도 받아놓고 있다. 동기는 15인승으로 실내 공간에 여유가 있는 비즈니스기이다. 동사는 이 비즈니스 체트가 업무에 바쁜 기업인들에게 휴식과 직무 및 통신의 편의까지 제공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모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